

“日 핵 보유 안해... 안심해도 좋다”



아베, 中 왕자루이 부장 예방자리서 밝혀 일부 ‘핵 보유론’ 제기예 야당 일제 반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중국 공산당의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않는다.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왕자루이 부장이 “비핵(非核) 3원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3원칙의 수정을) 논의하는 일은 없다”며 “국시로서 3원칙을 지켜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가가와 쇼이치(中昭一) 일본 집권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 15일 핵 보유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방송에 출연해 “헌법에서도 핵보유는 금지돼 있지 않다”면서 “핵이 있어야 공격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공격하면 반격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논의가 있어도 좋다”고 주장. 야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최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사민당 대표는 “일본은 피폭국으로서 핵무기의 근절에 노력해왔다”며 “그것을 흔드는 발언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대 30개국 단기간내 핵무기개발 가능”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로 핵 보유 또는 보유 추정국이 9개국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대 30개국 이 매우 가까운 시기내에(in a very short time)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6일 경고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평화적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500여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참가해 개최한 심포지엄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전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9개(핵무기 보유)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이 20~30개 국가들이 단기간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무등산 약수 살리려면



김주정

사회1부 차장

무등산 등반은 물 따라 걷는 산행이다. 바람재를 지나 너덜길 아랫 자락에 다 달으면 맑은 샘물이 쏟아져 내리고, 장물재 가는 길 중머리재 물 뜰에서도 약수가 흐른다. 갈증을 달랠 겸 한 모금하면 몸도 마음도 가을잠자리처럼 정갈해진다.

무등산에는 이런 샘이 무려 13곳이다. 넉넉한 풀만이라도 푸진 물 인심으로 서민들의 발길을 잡아끌고 있는 샘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5천명을 넘나든다. 주말이면 훨씬 많은 인파가 무등에 올라 시름을 달고, 한 모금 약수로 생기를 북돋워 내일을 준비한다.

그런 무등산의 약수터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다. 지난달 수질검사서 너덜길 약수를 비롯한 13개 약수 모두가 ‘음용불가’(飲用不可)판정을 받았다. 총 대장균 군(群)이나 분원성(糞原性)대장균 군에 오염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오염으로 돌샘 등 2~3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등산 약수터는 지난 여름내내 등산객들의 갈증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갈증을 참지 못하고 더러 마시는 이들도 며칠씩 ‘찜찜하게’ 살아야 했다. 매년 여름 되풀이되는 무등산 약수의 ‘배앓이’다.

한국의 100대 약수 가운데 하나라는 너덜길 약수는 지난해 10~12월 검사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물통에 받아두고 식수로 대신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겨울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조치는 상당수 등산객의 분통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13개 약수 모두를 마실 수 없는데도, 등산객들에 대한 배려는 약수터 현지에 경고문 한 장 부치는 것으로 대신했다. 등산객들은 거기 그곳에 샘물이 있는 줄 알고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갔을 텐데...

진단이나 처방도 느긋하다 못해 답답해 보인다. 시는 오염의 원인을 너덜길 약수 등 9곳의 용천수(湧泉水)에 동물들의 배설물이 흘러들기 때문이라고 본다. 처방도 이들 약수의 저류조(貯留槽)를 보수해 철조망을 치고, 산장광장 등 지하수 4곳엔 자외선 또는 오존을 이용한 살균기를 설치하겠다는 선이다. 이제야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함을 알았는가 보다.

하지만, 지하수인 산장광장 등 4곳도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려는가? 저류조를 보수하면 9개 용천수의 수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있는가? 원수(原水)의 오염을 자외선 살균기 정도로 차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광주시의 답은 “개보수 후에도 수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등산 지하수맥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이해할 만한 보존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걸까.

/jjnews@kwangju.co.kr

“참여정부 386 추상적 담론 함몰돼 정책실패”

이태복 前장관 ‘리더십’ 포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치권과 관료, 지식인, 시민단체, 재계, 언론 등 정책결정에 유·무형으로 참여하는 사회 지도층이 이해 관계를 초월해 책임 있고 전문가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어도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개최한 제6회 ‘장관리더십’ 포럼에서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민주화 세력이 정치에 참여했지만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심 이반과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회 지도층의 각성을 촉구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독재 타도란 추상적 과제를 목표로 삼던 보수적 야당 세력이 정

치 주체로 떠오르면서 구체적 현안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정치적 논리와 역학관계 및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면서 무능한 인사가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 들어서는 ‘386’으로 불리는 1970~80년대 학생운동 세력이 정계에 대거 진출했다”며 “운동권에서 거대담론 중심의 고민만 하던 이들이 추상적인 구호와 담론에 함몰돼 국민 생활의 구체적 현실을 몰랐던 것이 정책 실패의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관료의 타성과 무사안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책임감 결여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열의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일선 부처에서 청와대에 허위, 과장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분리로 남북간 민간 기업활동은 모상노



“민간기업 대북사업은 보장”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 천연실크가 피부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Jasmi

02-512-8978